

현대 중국어 복합방향보어 ‘過來/過去’의 ‘過’가 나타내는 ‘관문’ (passage) 의미와 PBL의 ‘문제’ 설계 적용*

이지현**

— 목 차 —

1. 문제 제기
2. 거시 사건(Macro Event, Talmy 2000) 이론에 근거한 ‘V+過來/過去’의 유형과 ‘過’의 ‘관문’(passage) 의미의 주관화 양상
 - 1) 이동 사건(Motion Event)
 - 2) 실현 사건(Event of Realization)
 - 3) 상태변화 사건(Event of State Change)
3. 복합방향보어 ‘過來/過去’의 ‘過’가 나타내는 ‘관문’ 의미 이해에 중점을 둔 PBL의 ‘문제’ 설계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복합방향보어 ‘過來/過去’가 이동 동사 외에도 다양한 동사 부류들과 결합하여 나타내는 의미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Talmy(2000)의 거시 사건(Macro Event) 이론을 기반으로, 비이동 고빈도 동사를 포함한 다양한 부류가 출현하는 ‘V+過來/過去’의 여러 실례들을 총 세 종류의 거시 사건, 즉 이동 사건(Motion Event), 실현 사건(Event of Realization), 상태변화 사건(Event of State Change)의 유형에 각각 포함시키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過’의 소위 관문(passage)의 경로 의미와 직시 성분 ‘來/去’의 의미가 상호 관련을 맺

* 이 논문은 2024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202409-004)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림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고 점차 주관화, 발전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過’가 구체적인 공간 경로에서 시간, 질(quality)적 차원의 관문 경로 의미로 추상화됨에 따라 ‘來/去’는 화자로부터 가깝고 먼 의미로부터 점차 원함과 원하지 않음, 긍정과 부정 등의 화자의 주관적 인식 의미로 발전한다. 이처럼 고도로 추상화된 의미를 나타내는 ‘過來/過去’는 한국어, 영어의 대응 성분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중국어 고유의 언어 유형적 특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학습자들에게 습득이 어려운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를 PBL의 관련 ‘문제’로 제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체득하는 과정을 통해 ‘過來/過去’의 활용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

키워드: ‘過來/過去’, 관문(passage) 경로 의미, 이동 사건(Motion Event), 실현 사건(Event of Realization), 상태변화 사건(Event of State Change), PBL (Problem-Based Learning)

1. 문제 제기

본고는 다음과 같이 복합방향보어 ‘過來/過去’가 출현한 실례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며,¹⁾ ‘過’의 경로 의미와 직시 성분 ‘來/去’ 의미의 추상화 과정을 유형별로 일목요연하게 관찰하여 ‘V+ 過來/過去’ 유형의 다양한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1) a. 她朝我看過來, 她一定發現我看。(伏涼涼, 2021:19)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눈치챘을 것이다.)
b. 他從一家屋脊上看過去, 又看見了那光明的太陽。
(그는 한 지붕 위에서 멀리 바라보았고, 다시 그 밝은 태양을 보았다.) (劉月華, 1998:305)

1) 본고는 ‘V+ 過來/過去’에 해당하는 한국어 및 영어 표현을 대조하기 위하여 ChatGPT를 활용하였다. 여러 AI 번역 도구를 이용하여 한국어, 영어 번역 문장을 다각도로 대조해 볼 수도 있으나, 논의의 일관성 및 편쪽의 제한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도구만 활용하도록 한다. 영어의 번역 문장은 본문 2장에서 나열한다.

- c. 一个陌生的女人來訪了, 三十多歲, 高挑的身材, 衣着頗時髦, 形象也還看得過去的那一類女人。(曾傳祿, 2009a:44)
 (낮선 여자가 찾아왔다. 서른이 조금 넘은 나이, 키가 큰 체격에 옷차림도 제법 세련되었고, 외모도 그러저럭 괜찮은 편에 속하는 그런 여자였다.)
- d. “過去沒得看, 現在多得看不過來。”是人們對於在北京舉行的各種大型演出和電影大片最深的體會。(曾傳祿, 2009a:45)
 (“예전에는 볼 게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 다 보지 못할 정도다.” 이는 베이징에서 열리는 각종 대형 공연과 영화 블록버스터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깊이 느끼는 점이다.)
- (2) a. 我的牙齒不好, 消化不良, 美味的東西, 老怕不能一天到晚不間斷的吃過去。(CCL)
 (내 이는 좋지 않고, 소화도 잘 안 된다.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하루 종일 끊임없이 먹어치우지 못할까 늘 걱정된다.)
- b. 第二天我特意起得很早, 照着昨天買的食譜做了一頓應該還吃得過去的早餐放在桌上。(曾傳祿, 2009a:46)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 어제 산 요리책을 보고 그러저럭 먹을 만한 아침을 만들어 식탁에 올려놓았다.)
- c. 北京傳統小吃真是多得讓人吃不過來。(CCL)
 (베이징의 전통 간식은 정말 너무 많아서 다 먹어 보지 못할 정도다.)
- (3) 李得才一說, 朱老星也就想過這個理兒來。(劉月華, 1998:293)
 (李得才가 말하자, 朱老星도 바로 그 이치가 납득이 갔다.)

(1-3)은 ‘看’, ‘吃’, ‘想’처럼 그 자체로는 물리적인 공간 이동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동사가 ‘이동경로+직시’를 표시하는 복합방향보어 ‘過來/過去’와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들이다. 또한 (1-2)를 통해 동일한 동사가 ‘過來/過去’와 결합하여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看’, ‘吃’, ‘想’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고빈도 비이동 의미 동사들이 ‘過來/過去’와 결합한 실례들은 원어민 화자들이 사용하는 표현들이다.

(1-3)의 ‘비이동 동사+過來/過去’는 구체적인 공간 위치 이동으로부터 주 관화(subjectification)의 인지 과정을 거친 일종의 추상화된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過來’와 ‘過去’는 동일한 경로 ‘過’에 서로 상반된 직시 의미를 표시하는 ‘來’와 ‘去’가 각각 결합한 것이어서 공간 위치 이동 동사들의 경우에는 대략 ‘過來’, ‘過去’와 모두 결합하는 대칭적인 양상을 보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1a-b)를 제외하면 동일한 동사가 출현하는 ‘V+ 過來’와 ‘V+ 過去’는 서로 관련성이 없는 동떨어진 의미를 나타내거나 혹은 특정 동사가 ‘過來’나 ‘過去’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특정한 추상 의미를 나타내는 비대칭성이 존재한다.²⁾

일반적으로 ‘V+ 過來/過去’의 의미 유형을 분류할 때 ‘이동 동사+ 過來/過去’가 모종의 위치 변화 결과 의미를 나타내는 ‘跑+ 過來/過去’ 등의 부류와 ‘상태변화 동사+ 過來/過去’가 상태변화 결과 의미를 나타내는 ‘醒過來’/‘昏過去’ 등의 부류를 우선적으로 거론하고, 위의 (1-3)의 실례에 해당하는 부류들은 부수적으로 거론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³⁾ 또한 이 부류들과 관련 있는 인지 의미역의 명칭과 그 해석도 다양하게 발견되어 학습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즉 (1a-b)의 ‘看+ 過來/過去’는 ‘공간역’에서 논의되는데, 행위자가 시선의 위치를 이동시킨다고 보거나(伏涼涼 2021:18), 행위자가 ‘看’의 시선 이동을 통해 시선을 받는 대상자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이동시켰다고 보기도 한다(劉月華 1998:287, 305). (2a)의 ‘吃過去’는 ‘먹어 넘기다’의 의미로, ‘시간역’과 관련을 지으면서 ‘먹는 동작을 끝내버림’의 종결 의미를 부각시킬 수도 있고(周紅·鮑瑩玲 2012:77 참조), 혹은 음식을 넘어가야 하는 관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먹는 동작을 통해 넘겨버림’의 의미를 부각시켜 설명할 수도 있다(曾傳祿 2009a:44 참조). (1c) ‘看得過去’, (2b) ‘吃得過去’는 동작 행위가 모종의 사회적 기준을 넘겨 ‘-할 만한’지의 여부를 가능보여 형식으로 자주 나타내어 일종의 평가 의미를 표시하는데, 관련 인지 의미역을 ‘비교역’(周紅·鮑瑩玲 2012), ‘수량역’(曾傳祿 2009b), ‘심리역’(尹夏燕·吳春相 2023) 등으로 다양하게 명명한다. (1d) ‘看不過來’, (2c) ‘吃不過來’는 동

2) 이처럼 ‘V+ 過來/過去’의 유형에서 나타나는 결합 의미상의 비대칭성은 본문 2장에서 관련하여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3) 王宜廣(2014), 朱京津(2017), 이갑남(2021) 등 참조.

작을 통해 여러 개의 수량을 표시하는 대상 목적어에 '두루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음'이라는 일종의 '주편의(周遍義)'를 가능보어 형식으로 주로 나타내는데, 관련 인지 의미역은 '수량역'(周紅·鮑瑩玲 2012), '사건역'(曾傳祿 2009b, 尹夏燕·吳春相 2023) 등으로 명명한다.⁴⁾

이처럼 (1-3)에 해당하는 'V+ 過來/過去'의 유형은 교육하기에 복잡하고 난도가 있어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대개 중급 이상의 학생들이 학습하도록 권장하는 경향이 있다.⁵⁾ 본고는 (1-3)의 실례들이 전형적인 위치 이동 변화나 상태변화 의미 이외에 여러 다양한 인지 의미를 나타내어 중국어의 방향보어 '過來/過去'가 지닌 고유의 유형적 특성을 보여준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따라서 앞 단락에서 밝힌 기존의 분석 방법으로는 어떤 원인에 의해 'V+ 過來/過去'의 결합 의미가 다양하게 발전하였으며 비록 전형적인 출현 동사 부류는 아니더라도 '過來/過去'와 결합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할 것인지 학습자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문 2장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Talmy(2000)의 거시 사건(Macro Event) 이론에 근거하여 'V+ 過來/過去'의 유형 의미를 전체적으로 맥락 있게 조망하여 이들 유형 사이의 의미 발전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⁶⁾ 이를 통해

4) (3)은 'V+ 過來'의 유형 분석 연구들에서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다만 劉月華(1998: 292-293)에 의해, '明白' 등과 같은 심리활동 동사가 '過來'와 결합하여 정상적이며 긍정적인 상태로 변화한 일종의 상태변화 결과 의미를 나타내는 부류에 포함되었으며, 본고 역시 이 분석을 따른다.

5) 伏涼涼(2021:55)은 (1d), (2c)에 해당하는 'V+ 過來' 유형 및 (1c), (2b)에 해당하는 'V+ 過去' 유형은 모두 학습의 1-3단계 가운데 고급 3단계에서, (3)의 'V+ 過來' 유형 및 (2a)의 'V+ 過去' 유형은 중급 2단계에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한다. 그런데 (1a-b)는 모두 초급 1단계에서 교육하도록 설계하였는데, '看'이 시선의 이동 변화를 나타내어 구체적인 공간 위치 변화와의 관련성을 연상할 수 있다고는 하나 외국인 학습자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초급 1단계에서 교육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6) Talmy의 거시 사건 이론에 근거하여 'V+ 過來'의 유형을 분류한 연구로 Yang and Li(2025)가 있는데, 그들은 이동 사건, 실현 사건, 상태변화 사건의 거시 사건 유형을 'V+ 過來' 용법에 대입시켰으며 본고 역시 그 내용을 일부 참조하였다. Yang and Li는 Talmy의 총 5가지 거시 사건 유형 가운데 이동 사건, 실현 사건, 상태변화 사건 외에도

학습자들의 ‘V+ 過來/過去’ 각 유형의 활용 능력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1-3)의 실례들을 포함한 ‘V+ 過來/過去’의 주요 유형들을 거시 사건의 개념 구조(Conceptual Structure)로 설명할 수 있는 이동 사건(Motion Event), 실현 사건(Event of Realization), 상태변화 사건(Event of State Change)으로 각각 분류한다. 또한 본고는 이 유형들이 이동 사건>실현 사건>상태변화 사건의 순서로 추상화되는 과정에 있으며 특히 ‘過’의 다양한 경로(path) 의미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공간(space)으로부터 시간(time), 질(quality)적인 경로의 과정으로 주관화, 발전하는 ‘過’의 소위 ‘관문’(passage)의 의미와 이와 관련되는 직시 성분 ‘來/去’ 파생 의미를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V+ 過來/過去’ 유형의 각 사건 의미와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 일목요연하게 분석을 시도한다. 사실상 (1-3)의 실례들은 ‘過’의 ‘관문’ 경로 의미가 주관화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의미 유형들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⁷⁾

이어서 본문 3장에서는 ‘V+ 過來/過去’에 함의된 ‘過’의 다양한 ‘관문’ 경로 의미를 학습자 스스로 체득하여 ‘V+ 過來/過去’ 유형의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PBL(Problem-Based Learning)의 방식을 도입해 보기를 제안한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PBL은 교수가 목표 지식과 관련된 이른바 ‘문제’를 학습자에게 제시하고 학습자는 이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해당 지식을 파악

기타 2가지 사건 역시 ‘V+ 過來’의 유형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고는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본문 (4)의 거시 사건 유형 참조). 그밖에 Yang and Li가 제시한 ‘V+ 過來’ 유형 중에 시간 의미역과 관련된 표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V+ 過去’를 거시 사건 유형과 관련지어 분석한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7) ‘過’는 ‘출발-경과-도착’의 전체 이동 과정 가운데 ‘경과’라는 일부 이동 과정만을 나타내어 ‘V+ 過來/過去’가 나타내는 이동 사건의 모종의 공간적 관문의 경로 역할을 한다. 또한 ‘V+ 過來/過去’의 일부 유형이 비공간 경로의 이동 사건, 실현 및 상태변화 사건으로 추상화되는 과정에서 질적 관문의 경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이 ‘過’의 추상화된 관문 경로 의미는 ‘V+ 過來/過去’의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어, 영어에서는 종종 이 주관화된 경로 의미에 대응하는 성분을 찾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문 2장의 한국어, 영어 해당 표현과의 대조를 통해 자세히 밝히도록 한다.

하고 그 적용 능력을 키우도록 훈련하는 교수 학습 모형이다. 본고는 교수자가 'V+ 過來/過去'의 주요 유형과 이때 '過'의 '관문' 경로 의미, 아울러 직시 성분 '來/去' 의미와의 관련성을 목표 문법 지식으로 학습자에게 주지시키고, 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한 '문제'를 다양하게 설계하여 학습자가 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과정 가운데 '過'의 관문 의미의 주관화 양상과 이에 따른 '來/去'의 파생 의미를 이해하며 궁극적으로는 'V+ 過來/過去'의 활용 능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 예시는 본문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2. 거시 사건(Macro Event, Talmy 2000) 이론에 근거한 'V+過來/過去'의 유형과 '過'의 '관문'(passage) 의미의 주관화 양상

Talmy(2000:213-288)에 의하면, 거시 사건은 주 사건인 틀 사건(framing event) 및 부 사건(co-event)의 두 개 하위 사건으로 구성된 복합 사건(complex event)을 말한다. 예를 들어 "The candle went out because something blew on it."(Talmy 2000:217)은 '촛불이 꺼진' 상태변화의 틀 사건과 '무언가 불어 촛불을 꺼뜨린' 원인의 부 사건이 두 개의 단문으로 분리된 복문의 형식이다. 그런데 이들 상태변화 사건과 원인 사건은 "The candle blew out."이라는 하나의 단문으로 축약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두 개의 하위사건이 융합되어 하나의 단문 형식으로 나타나는 복합 사건을 일명 거시 사건이라고 칭한다. 또한 위 예문에서 경로 표시의 불변화사(particle) 'out'은 구체적인 공간 위치 변화뿐만 아니라 상태의 변화 의미도 나타낼 수 있어, 상태변화 사건은 공간 위치 변화를 유발하는 이동 사건으로부터 은유적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Talmy는 이동 사건뿐만 아니라, 이 상태변화 사건 등을 포함한 5가지 유형을 거시 사건에 포함시켰다. 즉 다

음의 (4)는 영어의 불변화사가 구체적인 공간 위치 변화를 나타내는 공간 경로 이외에도 다양한 추상적 경로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거시 사건의 5가지 유형(Talmy 2000:214)

a. 이동 사건(Motion Event)

The ball rolled in.(공이 굴러 들어갔다.-'in':공간 경로)

b. 시간적 윤곽화 사건(Event of Temporal Contouring)

They talked on.(그들은 계속 얘기했다.-'on':계속의 상적 단계)

c. 상태변화 사건(Event of State Change)

The candle blew out.(촛불이 불어 꺼졌다.-'out':변화 경로)

d. 행위 상관 사건(Event of Action Correlating)

She sang along.(그녀는 따라 불렀다.-'along':행위의 상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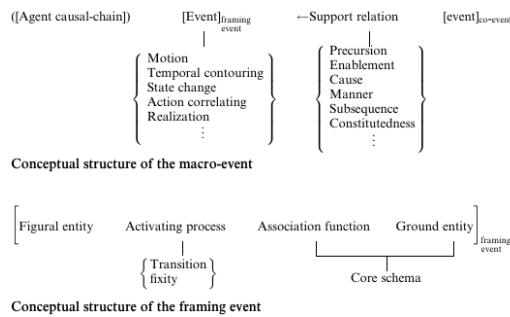
e. 실현 사건(Event of Realization)

The police hunted the fugitive down.(경찰은 도망자를 쫓아가 잡았다.-'down':결과 확인)

또한 다음의 (5)는 위에서 살펴본 5가지 유형의 거시 사건 및 해당 거시 사건을 형성하는 틀 사건의 개념 구조를 보여준다. 즉 (5)의 하단부 틀 사건의 개념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거시 사건의 각종 불변화사들은 연관 기능(Association function) 성분들로서 배경 실체(Ground entity)와 함께 틀 사건의 소위 핵심 도식(Core Schema)을 형성한다. 아울러 (5)의 상단부 거시 사건의 개념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연관 기능+배경 실체]를 핵심 요소로 하는 틀 사건은 부 사건의 특정 의미 요소와 함께 복합 사건을 이룬다. 예컨대 거시 사건의 대표적 유형인 (4a)의 이동 사건 가운데 'in'은 공간 경로의 연관 기능 성분으로서 '초점 실체(Figural entity)인 이동체 공이 향하는 모종의 공간'인 배경 실체와 함께 핵심 도식을 이루어 틀 사건을 형성한다. 이어서 동사 어근 'roll'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방식(Manner)의 부 사건과 의미적 융합을 이루어 단문 형식의 복합 사건을 구성한다. 만약 (4c)의 상태변화 거시 사건 유형을 살펴본다면, 'out'은 변화 속성 경로의 연관 기능 성분으로서 '초점 실체인 초(켜져 있는)가 변화하게 되는 모종의 상태(즉 꺼진 상태)'인

배경 실체와 함께 핵심 도식을 이루어 틀 사건을 형성하며, 동사 어근 'blow'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원인(Cause)의 부 사건과 함께 의미적 융합을 이루어 단문 형식의 복합 사건을 구성한다.⁸⁾ 따라서 위의 5가지 거시 사건 유형의 특징을 결정짓는 것은 [핵심 도식]을 포함한 틀 사건이며, 따라서 거시 사건 유형은 동시에 틀 사건 유형을 가리킨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5) 거시 사건과 틀 사건의 개념 구조(Talmy 2000:221)



Talmy(2000:222)는 영어의 거시 사건 유형 (4)에서 보듯이 핵심 도식의 '경로' 요소가 불변화사와 같은 위성(satellite) 성분으로 표시되는 언어 유형을 위성 틀 언어(satellite-framed languages)라고 하였으며, 중국어 역시 이 유형에 속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본고는 'V+ 過來/過去'가 이동 사건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거시 사건으로 분류됨과 동시에, 이 '過來/過去'는 이들 거시 사건의 핵심 도식에 해당하는 경로 의미 '過'가 출현하는 전형적인 위성 성분이라고 판단한다.⁹⁾ 또한 'V+ 過來/過去'는 전형적인 공간 이동 사건을 거쳐,

8) (5)의 하단부 틀 사건의 4개 요소 가운데 활성화 과정(Activating process)은 배경 실체를 기준으로 변화를 발생시키거나(transition) 혹은 변화 없이 고착됨(fixity)의 단계를 포함하는데, 예를 들어 이동 사건에서는 이동(motion)과 정지(stationariness), 상태변화 사건은 변화(change)와 정지(stasis)로 각각 이 두 의미 단계가 실현된다(Talmy 2000:218).

9) 李福印(2017:3)은 '上山', '下山'와 같이 '上'/'下'가 방향동사로 사용되어 동사 어휘 내에 경로 의미를 포함하는 실례들에 비추어 볼 때 중국어 역시 동사 틀 언어(verb-framed

실현 사건 및 상태변화 사건의 유형으로 발전되었다고 생각하며, 이 3종류 사건 유형의 개념 구조 내에는 공통적으로 ‘MOVED’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공간 위치의 변화, 실현 의지의 확정 단계(즉 사건의 실현을 통한 결과 단계)로의 변화, 상태의 변화로 추상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판단한다.¹⁰⁾ 특히

languages)의 특성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밖에 Slobin(2004)이 제시한 등가 틀 언어(equipollent-framed languages)는 Talmy의 동사 틀 언어 혹은 위성 틀 언어라는 이분법의 분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언어 유형으로서, ‘방식’/‘원인’ 동사와 ‘경로’ 동사가 연동 형식으로 출현하여 통사, 의미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는 특성을 지닌다. 홍연옥(2013:280-281)은 중국어의 ‘이동 동사+방향보어’ 형식 ‘走下來’, ‘跑出去’ 등과 같이 방향보어가 공간 이동 경로를 의미할 경우에는 이 방향보어가 방향동사와 같은 실제적인 의미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방식/원인+경로’의 연동 형식의 등가 틀 언어에 속한다고 하였다. 본고는 중국어의 경로 의미를 나타내는 방향동사들이 동사 틀 언어에 속하는 특성을 보임에는 동의하나, ‘이동 동사+방향보어’ 형식을 연동 형식의 등가 틀 언어로 분류하는 의견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走下來’가 ‘걸어서 내려오다’와 같이 ‘방식+경로’의 두 개 동사가 통사적으로 결합한 연동 형식으로 간주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고는 하나, 기존의 대다수 분석을 통해 ‘下來’는 핵심 동사 ‘走’의 뒤에 출현하여 경로 의미를 보충하는 성분으로 문법화를 거쳤고 따라서 ‘走’와 동등한 통사적 지위를 가진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동 동사+過來/過去’의 이동 사건 유형 역시 등가 틀 언어로 분류하지 않으며, ‘過來/過去’는 이동 동사의 공간 경로 의미를 보충하는 위성 성분으로 간주한다.

- 10) 이동 사건 (4a) “The ball rolled in”은 ‘[The ball **‘MOVED’** in] WITH-THE MANNER-OF [it rolled]’의 개념 구조를 가지며, 상태변화 사건 (4c) “The candle blew out.”은 ‘[The candle **‘MOVED’** TO EXTINGUISHMENT] WITH-THE CAUSE-OF [SOMETHING blew on it]’의 개념 구조를 가진다. 실현 사건 (4e) “The police hunted the fugitive down.”은 ‘[The police **‘MOVE’** TO FULFILLMENT the INTENTION (to CAUSE the fugitive)] WITH-THE-SUBSTRATE-OF-[The police ACT+INTEND to CAUSE the fugitive being caught]’의 개념 구조를 가진다(Talmy 2000 참조, 賈紅霞·李福印(2015:25)에서 재인용). 한편 焦飛燕(2018), Yang and Li(2025)에 근거하여, 본고는 ‘V+過來/過去’가 이동 사건>실현 사건>상태변화 사건 유형의 순서로 발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각 사건의 ‘過’ 경로 의미가 주관화되는 단계와도 연관되어 있다. 이에 관해서는 본문의 각 사건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또한 Talmy가 제시한 5가지 거시 사건 유형 가운데 (4b) 시간적 윤곽화 사건 및 (4d) 행위 상관 사건은 ‘V+過來/過去’의 용법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덧붙여 王國楡(2005:7)은 방향보어가 선형적인 발전보다는 이동 의미를 중심으로 각 추상 의미가 산발적으로 발전하는 양상이 더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데, 본고는 ‘過來/

이와 같은 사건 유형의 발전 과정에서 경로 '過'는 점차 비이동 동사와의 결합을 통해 공간 이동 경로로부터 시간적 경로를 거쳐 질적 경로로 주관화, 발전되는 일종의 추상적인 관문(passage) 의미와 연관된다. 아울러 '출발-경과-도착'의 전체 이동 과정 가운데 화자에게 가까워짐을 나타내는 직시 성분 '來'는 도착점을 부각시키고 화자로부터 멀어짐을 나타내는 직시 성분 '去'는 출발점을 부각시키는데,¹¹⁾ 이때 경로 '過'가 출발 및 도착 지점을 공간적으로 분리시킴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過'의 의미 주관화가 심화될수록 이 추상화된 관문 의미가 관문을 넘기 이전(출발점)과 이후(도착점)를 심리적으로 분리시키고 이와 연관된 '來/去'의 추상화 의미도 상반된 방향으로 더욱 발전하여 '공간상의 가까워짐/멀어짐'으로부터 '심리적인 긍정/부정' 의미에 이르기까지 화자의 주관성이 가속화됨을 예측할 수 있다.¹²⁾¹³⁾

過去'의 경우에는 앞서 밝힌 선형적 발전 양상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 11) '도착점'을 의미적으로 부각시키는 '來'는 화자가 도착점 위치에서 이동 사건이 종결(telic)됨을 직접 인식하고 사건이 모종의 변화 결과(result)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고는 이를 화자 결과성(resultativity)이라고 칭한다. 이에 따라 동사 뒤에 결합된 '來'는 동사 사건의 '완성', '실현' 등과 같은 모종의 결과 의미를 나타낸다. 반면 '출발점'을 의미적으로 부각시키는 '去'는 이동 사건의 종결 단계(즉 출발점으로부터 이동이 발생하여 모종의 지점까지 도달한 단계)까지는 나타낼 수 있으나 화자 입장에서는 도착점까지 도달했는지의 여부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어 사건이 종결된 이후의 변화 결과 단계, 다시 말해 화자 결과성을 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去'는 사건의 종결성(telicity)만을 나타낼 수 있다. 본고는 '사건의 종결 단계>결과 단계'의 선후 관계에 따라 사건이 종결된 이후 모종의 결과 상태 의미가 발생하며, 결과 의미는 종결 의미를 포함한다고 생각한다(李韋浩·李知珉·鄭池秀 2015 참조).
- 12) Wang(2002), 曾傳祿(2009a, 2009b) 등에 근거하자면, 추상화가 진행된 'V+ 過來/過去'의 '過'는 일종의 장애물(障礙)을 넘어야 함을 나타내며 'V+ 過來'는 장애물을 넘어서 오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고 화자가 희망하는 것임을 나타낸다. 반대로 'V+ 過去'는 장애물을 넘어 가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고 화자가 희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는 것임을 나타낸다.
- 13) 김윤정(2015)에 근거하자면, 이동 사건 'V+ 過來/過去'의 '過'는 객관적 경로를 나타내고, '來/去'는 직시 의미의 주관적 경로를 나타내어 '경로'와 '직시적 방향'은 서로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동 사건 'V+ 過來/過去'에서 장소 성분은 '過'와 '來/去' 사이에 나타나 '過+ 장소'는 공간 경로의 관문을 넘어간 이동의 궤적만을 나타내고 '來/去'는 이동의 방향을 부가적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하여 '過來/過去'가 전체 이동의 과정

1) 이동 사건(Motion Event)¹⁴⁾

본고는 다음의 (6-12)에서 보듯이 ‘過’와 연관되는 이동의 경로 의미가 구체적인 공간 특성으로부터 시간 특성을 거쳐 사회적 기준의 질적 특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추상화되는 부류들을 넓은 의미의 이동 사건 유형에 포함시켰다. Talmy가 제시한 거시 사건의 전형적인 유형인 이동 사건 (4a)는 이동체가 모종의 구체적인 공간 경로를 통해 위치 변화가 발생하는 부류에 국한된다면, 중국어에서는 그밖에 이동체가 주관화된 다양한 의미의 경로를 통해 모종의 측면에서 이동 전후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이동 사건 유형들이 존재할

에서 단일한 이동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V+ 過來/過去’가 이동 사건으로부터 은유적 추상화를 거쳐 실현 사건, 상태변화 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에도 ‘過’의 질적 경로 관문을 향해 주관화되는 의미에 우선적으로 주목하고 다음으로 이와 결합한 ‘來/去’의 관련 주관화 의미를 살피는 것이 전체 ‘V+ 過來/過去’ 유형의 용법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다만 ‘V+ 過來/過去’가 이동 사건으로부터 실현 사건 및 상태변화 사건으로 점진적인 주관화 과정을 거침에 따라 ‘過’의 객관적 경로 의미도 주관적 경로 특성을 지니게 될 것이고 이 주관적 경로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過’는 모종의 구체적인 장소와 결합하기 불가능해질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후속의 ‘來/去’와 형식적으로 분리되지 못하여 ‘過來/過去’는 두 개의 주관적 이동 개념이 비교적 밀접하게 결합된 복합 위성 단위로 발전한다고 파악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이는 이동 사건을 나타내는 ‘V+ 過來/過去’에서 ‘[過+ 장소]+來/去’처럼 객관적 경로 ‘過’와 주관적 이동 방향 ‘來/去’가 상호 분리 가능한 경우와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하겠다.

- 14) 이동 사건 가운데 전형적인 이동 동사류들은 이미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다양한 실례들을 나열하였으므로 본고에서 부가적으로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대표적인 유형 (6)만 제시한다. 본고는 전형적인 이동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으면서 ‘過來/過去’와 결합하여 다양한 인지 의미를 나타내는 고빈도 출현 동사류들에 관심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유형들을 분석하는 데 집중한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의 분석 내용을 참조하되 (劉月華 1998, 張慧 2009, 曾傳祿 2009a/2009b, 張幼冬 2010, 周紅, 鮑瑩玲 2012, 朱京津 2017, 伏涼涼 2021 등), 편폭의 제한을 고려하여 다양한 동사류들을 모두 제시하지는 않는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유형들 가운데 경로 ‘過’와 ‘來/去’ 사이에 장소를 포함한 모종의 관문에 해당하는 성분이 출현한 경우는 본고에서 분석한 예문들을 참조하여 별도로 표기하였다. 사실상 전형적인 이동 사건 (6)을 제외하고 점차 추상적인 관문 경과 의미로 발전하게 되는 ‘過’ 뒤에 관문에 해당하는 성분들이 실제로 출현하기는 쉽지 않으며, 본고의 관찰에 의하면, 몇 종류의 유형에서 제한적으로 발견된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고는 이처럼 전형적인 이동 사건으로부터 의미적으로 파생된 부류들 역시 뚜렷한 모종의 경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동체가 경로 구간을 통과하는 이동의 과정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으므로 광범위한 이동 사건의 부류로 분류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양한 주관성의 경로 성분 '過'와 직시 성분 '來/去'가 결합하여 여러 추상화된 의미 유형의 이동 사건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은 중국어 이동 사건 유형의 언어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Talmy의 이동 사건 유형은 언어 유형적으로 더 다양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 (6) '이동 동사+ 過(공간 경로)+ (장소)+ 來/去(직시)'
- a. 花雲瞧見也忙跳過船來。(CCL)
(花雲이 보자마자 급히 배를 뛰어 건너왔다./ Huayun, upon seeing it, quickly jumped across onto the boat.)
- b. 趁着夜色, 跳過圍牆去。(劉月華 1998:302)
(밤 어둠을 틈타 담을 뛰어넘어 갔다./ Taking advantage of the night, he leapt over the wall.)
- (7) '신체자세 동사+ 過(공간 경로)+ 來/去(직시)'
- a. “來, 坐過來, 你爲什麼不敢挨近我?”(CCL)
(“이리 와, 옆에 앉아. 너는 왜 감히 내 곁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 “Come, sit here. Why don't you dare come close to me?”)
- b. 謝阿狗連忙坐過去安慰他。(CCL)
(謝阿狗가 얼른 다가가 옆에 앉아 그를 위로했다./ Xie Agou quickly went over, sat down beside him, and comforted him.)
- (8) '비전형 이동 동사+ 過(공간 경로)+ 來/去(직시)'
- a. 她朝我看過來, 她一定發現我看。(伏涼涼 2021:19) (=1a)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눈치챘을 것이다./ She looked over at me; she must have realized that I was watching.)
- b. 他從一家屋脊上看過去, 又看見了那光明的太陽。(=1b)
(劉月華, 1998:305)
(그는 한 지붕 위에서 멀리 바라보았고, 다시 그 밝은 태양을 보

- 았다./ From the rooftop of a house, he looked out into the distance and saw the bright sun.)
- (9) ‘소유권 이동 동사+ 過(관계 경로)+ 來/去(직시)’
- a. 她想用八十出頭買過來。
(그녀는 80만 조금 넘는 가격으로 사들이고 싶어 한다./ She wants to buy it for just over eighty.)
- b. 他想把我的股份買過去。
(그는 내 지분을 사 가고 싶어 한다./ He wants to buy up my shares.)
- (10) ‘인내 동사+ 過(고난의 시간 경로)+(고난의 시간)+ 來(현재 완성 결과)/去(과거 종결/미래 사건)’
- a. 總算熬過來了。(劉月華 1998:309)
(겨우겨우 버텨서 지나왔다./ I finally managed to get through it.)
- b. 總算熬過去了。劉月華(1998:309)
(마침내 견뎌 내고 지나갔다./ I finally got through it.)
- c. 看樣子熬不過今年去了。(劉月華 1998:308)
(보아하니 올해는 끝까지 버티지 못할 것 같다./ It looks like I won't be able to make it through this year.)
- (11) ‘임기응변/속임 의미 동사+ 過(고난의 경로)+(고난)+ 去(고난 통과 종결, 역지로 함)’
- a. 他這反問一句，才把烏家兩位小姐問的話搪塞過去。
(伏涼涼 2021:26)
(그가 이렇게 반문하고 나서야 비로소 오 가문의 두 아가씨가 한 질문을 얼버무릴 수 있었다./ Only when he retorted like this was he able to brush off the question asked by the two young ladies of the Wu family.)
- b. 瞞不過我去。(王國楨 2005:195)
(나를 속일 수는 없어./ You can't fool me.)
- c. 我的牙齒不好，消化不良，美味的東西，老怕不能一天到晚不間斷的吃過去。(CCL) (=2a)
(내 이는 좋지 않고, 소화도 잘 안 된다.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하루 종일 끊임없이 먹어치우지 못할까 늘 걱정된다./ My teeth are not good, and I have indigestion. When it comes to delicious food, I always worry that I can't keep eating it continuously from morning till night.)

- (12) '비교/평가 의미 동사+ 過(사회적 비교/평가 기준 경로)+ (사회적 비교/평가 기준)+ 去(사회적 기준 통과 종결)'
- a. 他們還有什麼賽過我們去的地方嗎? (王國桢 2005:196)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데가 있겠는가?/ Do they have any place that surpasses where we have been?)
 - b. 第二天我特意起得很早, 照着昨天買的食譜做了一頓應該還吃得過去的早餐放在桌上。(曾傳祿, 2009a:46) (=2b)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 어제 산 요리책을 보고 그럭저럭 먹을 만한 아침을 만들어 식탁에 올려놓았다./ The next day, I deliberately got up early and, following the recipe I had bought yesterday, made a breakfast that should be passable and set it on the table.)
 - c. 癩蛤蟆說不過端午兒去。(CCL)
(두꺼비는 단오에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어떤 때는 아무리 설득하려 해도 소용없다./ A toad can't be reasoned with on the Dragon Boat Festival.)
 - d. 一个陌生的女人來訪了, 三十多歲, 高挑的身材, 衣着頗時髦, 形象也還看得過去的那一類女人。(曾傳祿, 2009a:44) (=1c)
(낮선 여자가 찾아왔다. 서른이 조금 넘은 나이, 키가 큰 체격에 옷차림도 제법 세련되었고, 외모도 그럭저럭 괜찮은 편에 속하는 그런 여자였다./ A strange woman came to visit. She was in her thirties, tall, dressed rather fashionably, and the kind of woman whose appearance was still fairly presentable.)

또한 위의 이동 사건의 여러 유형들은 모종의 경로를 통한 이동의 변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 (13) 공간 경로 '過'+(장소)+ 직시 '來/去'(이동 사건 (6)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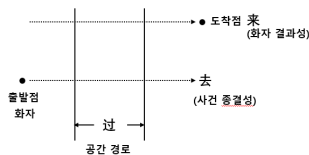
즉 전형적인 공간 이동 사건 (6)은 전형적인 이동 동사류가 출현하여 이동체가 출발점으로부터 ‘過’의 공간 경로를 거쳐 도착점을 향해 이동함을 나타낸다. ‘來’는 화자가 도착점에서 이동체가 도착해 옴을 확인하여 위치 변화라는 사건 완성의 결과 의미를 도출시켜 일종의 화자 결과성을 나타낸다. 이에 반해 ‘去’는 화자가 출발점에 존재하며 이동체가 도착점을 향해 이동해 갔음을 나타낸다. 梁銀峰(2007:50), 周紅·何凡(2018:105) 등은 ‘去’는 본래 ‘출발점을 떠나다(離開)’의 의미로부터 ‘도착점으로 가다(往)’의 의미로 발전했다고 하였는데, 이에 따라 ‘去’가 출발점으로부터 이동을 시작한 이후의 경로 지점 혹은 도착점 모두를 표시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去’로 인한 이동체의 경로 구간 통과나 도착을 화자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어, ‘去’는 이동체가 이동의 모종의 지점에 가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사건의 종결성만을 나타낸다. 또한 ‘過’는 (6)의 구체적인 장소 성분 ‘船’, ‘圍牆’과 결합하여 물리적인 공간 경로 의미를 명확하게 나타냄으로써 ‘경로+도착’의 과정을 분리할 수 있으므로 이동 사건 (6)은 경로 통과 의미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하겠다. (6) ‘跑+過來/過去’의 ‘이동방식+경로+직시’ 결합 방식은 한국어의 ‘뛰어 건너오다/넘어가다’와 정확하게 대응된다.¹⁵⁾ 영어의 ‘jump across onto’/‘leap over’와 대조하면, 경로 위성 성분 ‘across’, ‘over’는 ‘過’와 의미적으로 대응되고(‘onto’는 ‘위쪽으로’라는 경로 의미를 더해준다),¹⁶⁾ ‘來/去’에

15) 리우하이러·김성주(2022:44)는 한국어의 경우 경로 의미가 동사 어휘 내에 포함되어 있는 ‘건너오다’류의 동사들에 비추어 동사 틀 언어 유형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나아가 ‘뛰어 넘어오다’와 같이 이동방식 동사가 ‘경로+직시’ 동사와 결합한 유형 역시 삼중 복합동사로 간주하여 여전히 동사 틀 언어 유형의 실례라고 보았다. 만약 ‘뛰어서 넘어오다’와 같이 ‘방식+경로’의 의미가 통사적으로 구현된 연동 형식의 측면에서 보자면 ‘뛰어 넘어오다’류는 등가 틀 언어 유형의 범주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한국어의 이와 같은 언어 유형 특성 자체를 규명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한국어의 이동 사건 표현 가운데 ‘過來/過去’와 유사한 대응 성분이 있는지의 여부를 관찰하여 언어 유형의 보편성 및 특수성을 살펴보는 데 집중한다.

16) 王硯農·焦群·龐顯(1987:156-157)에 의하면, ‘過’는 영어의 across, through, over, past와 대응된다. 이기동(2022:73-78, 416)은 ‘across’가 모종의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공간을 가로지르는 의미를 지니며, ‘over’가 일정 공간을 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해당하는 직시 성분이 출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형적인 공간 이동 사건 유형의 경우, 공간 경로 '過'는 한국어, 영어의 대응 성분을 발견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한국어는 '來/去'에 대응되는 '오다/가다'가 해당 경로 성분과 함께 출현하여 중국어의 '過來/過去'와 동일한 결합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공간 경로 '過'의 습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14) 공간 경로 '過'+ 직시 '來/去'(이동 사건 (7-8) 유형)



(7)의 이동 사건은 (6)과 동일하게 '過'가 공간 경로를 나타내고 이동의 도착점과 출발점을 각기 '來/去'가 표시하고 있으나, (14)의 그림에서 보듯이 이동체의 이동의 성격은 전형적인 공간 이동에서 이동의 과정이 물리적으로 뚜렷이 나타나는 그것과는 다르다(따라서 이동의 과정은 점선으로 처리). 즉 (7)의 유형에서는 신체자세 동사 '坐', '站', '踩'류가 출현하여 '過來/過去'와의 결합을 통해 해당 동작이 행해지는 위치가 이전과 비교하여 변화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坐過來'는 화자로부터 먼 곳(출발점에 해당)에 앉아 있다가 공간 경로를 넘어 화자와 가까운 곳(도착점에 해당)으로 앉아, 앉는 위치가 변화한 결과를 화자가 확인하는 화자 결과성을 나타낸다. 반대로 '坐過去'는 화자와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앉는 위치를 변화시켜 사건의 종결성을 나타낸다. 한국어의 경우 '坐過來'는 '옆에 앉다'로 표현되어 공간 경로 '過'의 의미에 대응되는 성분이 없어, 전형적인 위치 이동 의미를 보이지 않는 '앉는' 동작과 경로 의미가 서로 결합되기 힘들음을 보여준다. '來'의 의미는 부사어 '옆에'로 표현되어 화자 가까이 있음을 표시하였다. '坐過去'는 '다가가 옆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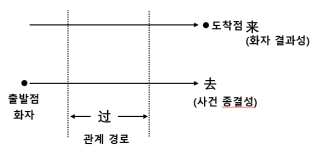
앉다'로 표현되어 '경로+직시' 동사 '다가가다'는 '過去'에 대응되며 '옆에' 부사어를 별도 보충하였다. 다만 '다가가다'와 '앉다'가 연속 등장하는 복문의 형식으로서 '坐過去'의 동사 '坐'의 위치 변화를 '過去'가 보충 설명하는 단문 형식의 복합 사건 유형과는 달리 분석된다. 영어의 경우 '坐過來'는 'sit here'로 표현하여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過來'는 부사어 'here'로 표현된다. '坐過去'는 'go over and sit down beside him'으로 표현하여 '過'는 경로 성분 'over'에 대응되며, '去'는 동사 'go'에 대응된다. 그러나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go over', 'sit down'이 접속사 'and'로 연결된 복문의 형식으로서 단문 형식의 '坐過去'와는 다르게 분석된다.¹⁷⁾ (8)의 이동 사건 역시 (7)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비전형적인 이동 의미를 나타내어, 행위자 자체는 제 자리에 머물러 있고 동작 '看'을 통해 행위자의 시선이 이동체가 되어 공간 위치 변화를 발생시키는 유형이다. 따라서 (14)에서 보여지듯이 이동의 과정은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므로 (7)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실선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看過來'는 시선이 화자가 있는 도착점으로 이동해 와서 시선의 위치

17) 홍연옥(2013:288-291)은 '漂到洞裏'에서 보듯이 '漂'(떠 있는 상태) 자체로는 이동 의미가 없으나, 경로 정보를 제공하는 '到洞裏'와 결합하면서 이동의 의미를 공동 합성해낸다고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坐到+장소+來/去'에서 '到+장소'는 경로 의미를 표시하는 위성 성분으로서 신체자세 동사 '坐'와 결합하여 이동의 의미를 공동 합성해낸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到+장소'는 '過'로 대체될 수 있으므로, '坐過+來/去'는 '장소를 옮겨 앉다'라는 이동 사건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갑남(2021:267-270)에 의하면, '坐+過來/過去'류는 '先보어+後동사'의 순서로 의미 결합이 형성된 유형으로 먼저 '過來/過去'의 이동 동작을 발생시킨 후 '坐' 동작을 이어서 하는 구조로 분석된다. 사실상 위치를 옮긴 후 앉는 동작을 발생시키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타당하겠으나, '先위치이동동작+後신체자세동작'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先過來/過去, 然後坐' 식의 복문 형식이 의미적으로 더 잘 대응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복문 형식에서 '過來/過去'는 보충어가 아닌 경로 의미를 지닌 방향동사로서 술어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실상 '坐+過來/過去'는 전체 이동 사건의 주된 동작(이동) 방식은 부 사건의 '坐'가 담당하고, 주 사건의 '경로(+직시)'를 '過來/過去'가 담당하는 복합 사건 구조의 거시 사건 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坐' 자체는 이동 의미가 미약하더라도 '過來/過去'와의 의미 합성을 통해 전체 구문의 이동 의미를 부여받게 되고 '過來/過去'는 이동의 '경로+방향'을 설정해 주는 위성 성분의 보충어라고 분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변화의 결과 상태를 확인하는 화자 결과성을 나타내며, '看過去'는 시선이 화자가 있는 출발점으로부터 멀어져 도착점에 가까워져 가는 사건 종결성을 표현한다. (8) '看+過來/過去'에 해당하는 한국어 표현은 '바라(바로 향하여:경로)+보다'인데, '來'의 의미는 생략되었으며 '去'는 부사어 '멀리'로 표현되었다. 영어의 해당 표현은 'look+ over(경로) at (me)/look+ out(경로) into the distance'로서 '過'와 특히 'over'가 여러 의미 유형에서 일관된 대응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경로 위성 성분의 주관화 양상에는 언어 유형적으로 일관된 인지적 공통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at me'를 통해 시선이 건너와 화자인 나에게 다가오는 '來'의 의미를 나타낸다. '去'는 경로 'out' 뒤의 'into the distance'를 통해 시선이 화자가 있는 '안에서 밖으로'의 경로를 거쳐 화자로부터 '멀리' 감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의미 대응을 이룬다.

이상의 (7-8) 이동 사건 유형들은 모두 (6)의 유형에 비해 '過來/過去'에 해당하는 한국어, 영어의 표현들에서 일관성 있는 대응 성분이 일부만 관찰되어 습득이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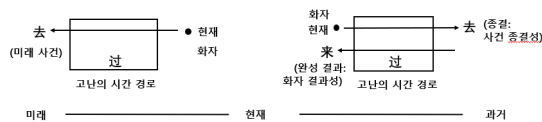
(15) 관계 경로 '過'+직시 '來/去'(이동 사건 (9) 유형)



즉 이동 사건 (9)의 '買+過來/過去'는 추상적인 관계 경로 '過'를 따라 특정 대상에 대한 소유권을 화자 위치의 도착점으로 가져오는 소유권 변화의 화자 결과성을 나타내거나 혹은 소유권을 화자 위치의 출발점으로부터 멀리 가져가는 사건 종결성을 나타낸다. 동작 '買'와 관련되는 소유권의 이동 경로 과정은 관계 경로라는 주관화된 의미 특성을 지니므로 구체적인 공간 경로와는 구별되어 (15)에서 보듯이 실선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 '買+過來/過去'

의 한국어 표현은 ‘사들이다/사 가다’로서 ‘사+ 들이(이동+ 경로)+ 다’는 화자가 안쪽에 있다고 상정하고 소유권을 이동시켜 들임을 나타내어 ‘買過來’와 어느 정도 의미상의 대응성을 찾을 수 있으나, ‘來’에 해당하는 정확한 직시 방향은 모호하다. ‘사+ 가다(이동+ 직시)’는 화자로부터 멀리 소유권을 이동시켜 감을 나타내지만 특정 경로 의미 성분은 발견할 수 없다. 영어의 해당 표현은 각각 ‘buy’/‘buy up’인데, 사는 동작 외에 ‘來/去’에 해당하는 성분은 나타나지 않으며, ‘up’은 본래 위쪽으로 향하는 의미의 경로 성분인데 여기서는 ‘한계치가 위쪽까지 향하다’(이기동 2022:530-531 참조) 즉 ‘철저히, 완전하게’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소유권의 관계 의미 이동 경로와는 거리가 있다. 이처럼 한국어의 ‘사들이다’를 제외하고는 그밖에 한국어, 영어에서 구매를 통한 소유권 관계의 경로를 표현하는 의미 대응 성분이 발견되지 않아 학습자가 소유권 이동 동사와 ‘過’의 연관성을 이해하기 쉽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¹⁸⁾

(16) 고난의 시간 경로 ‘過’+(고난의 시간)+ 현재 완성 결과 ‘來’/과거 중
결 혹은 미래 사건의 ‘去’(이동 사건 (10)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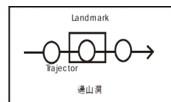
(16)에 해당하는 (10)의 이동 사건 유형은 동작의 과정이 시간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過’ 역시 시간 관련 경로 의미로 추상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 역시 대다수가 시간 인지 의미역의 관점에서 논하고 있는 부류이기도 하다. (10)의 유형은 행위자 주어가 의지로 인내하여 고난의 시간 경

18) ‘買+來/去’의 경우에는 관계 경로 ‘過’가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 이동의 과정은 드러나지 않고 다만 소유권의 변화 상태만을 부각시켜 나타낸다(劉月華 1998:57 참조). 한국어의 ‘사 가다/오다’라는 표현은 이 ‘買+來/去’와 형식, 의미상 상호 대응된다.

로를 이동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16)과 같이 '過'는 고난의 시간 관문으로서 앞선 유형에서 보여지는 공간, 관계의 경로와는 달리 견뎌 뚫고 지나가야 하는 장애물의 인식이 보태어져 한층 더 주관화를 거친 입체적인 네모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¹⁹⁾ 또한 (10c)에서처럼 '過'가 거치는 구체적인 고난의 시간 경로가 간혹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행위자가 인내의 동작을 통해 모종의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宗茜(2015:91)에 의하면, 시간 영역에서 사람 혹은 사물은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이동해 오는 존재이며 미래의 시점에 존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10) '熬過來'는 행위자가 과거로부터 고난의 시간 경로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내 동작을 진행하여 왔고 화자가 현재 시점에서 인내 동작의 종결을 확인하여 사건의 완성 결과 의미를 도출하는 화자 결과성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행위자의 인내 동작이 앞으로 미래에 발생하여 진행될 것임을 화자가 미리 미래 시점에서 인식해 올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熬過來'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은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반면 '熬過去'는 행위자가 현재로부터 앞으로 고난의 시간 경로를 거쳐 인내 동작을 진행해 갈 것이고 화자는 현재 시점에서 인내 사건이 미래에 발생해 나갈 것임을 인식하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표현할 수 있다. 한편 '熬過去'는 화자의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행위자의 인내의 동작은 이미 발생하여 끝나 가버려 과거 사건에 속함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인내 사건의 종결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인내 동사류와의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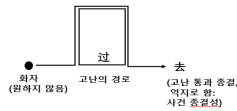
19) Wang(2002:62)은 동사 '過'가 거치는 모종의 장소가 평면적이거나 혹은 입체적일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아래 도식 (1)에서처럼 이동체가 '山洞'과 같은 입체적인 장소를 통과하는 의미를 '過'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본고는 고난의 시간 경로가 뚫고 지나가야 하는 입체적인 관문의 형태로 연상되기 쉽다고 판단하여 아래 도식의 경로 형태를 차용하였음을 밝힌다.

(1) '過+山洞'의 이동 사건 도식(Wang 2002:62)



합 양상에서 미래/과거 종결 사건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過去’와 현재 종결 사건만을 나타내는 ‘過來’는 의미상의 비대칭 현상이 발생한다. 이미 발생한 동작을 나타내는 (10a-b) ‘熬+過來/過去’에 해당하는 한국어 표현을 살펴보면 ‘버터 지나오다/견뎌 내고 지나가다’이다. ‘지나(경로)+오다(직시)/‘지나(경로)+가다(직시)’는 ‘過來/過去’와 정확하게 대응되는데, 인내 동사 ‘버티다’, ‘견뎌 내다’는 ‘지나+오다/가다’와 연속적으로 결합되는 통사 형식을 이루어 이때 ‘지나+오다/가다’는 방향을 보충하는 성분이 아니라 독립적인 방향 동사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발생할 동작을 나타내는 (10c) ‘熬不過去’는 한국어로 ‘끝까지 버티지 못하다’에 해당하여 ‘過去’의 의미가 명확히 반영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熬+過來/過去’에 해당하는 영어의 표현 ‘get/make through’를 살펴보면 일관되게 경로 성분 ‘through’가 시간 속을 지나가는 의미를 나타내어²⁰⁾ ‘過’와 의미적으로 대응되는 경로 성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來/去’에 해당하는 성분은 발견되지 않으며 시제 형식을 통해 동작이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것임을 나타낸다. ‘過’를 통해 시간과 연관된 경로를 표현하는 방식은 한국어, 영어에서도 비교적 일관된 대응 성분을 확인할 수 있어 시간을 일종의 이동 경로로 표현하는 방식은 언어 유형적 공통성이 존재하여 습득하기 용이함을 알 수 있다.

- (17) 고난의 경로 ‘過’+(고난)+ 고난 통과 종결/역지로 함 ‘去’(이동 사건)
(11) 유형)



(17)에 해당하는 (11)의 이동 사건 유형은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시간 인지

20) ‘through’는 입체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내부를 이동체가 뚫고 지나가는 구체적인 이동 의미로부터 시간 속을 지나가는 의미로 주관화 되었다(이기동 2022:445-447 참조).

의미역의 관점을 바탕으로 임기응변 의미 '搪塞' 등의 동사 혹은 속임, 은폐 의미 '瞞', '蒙蔽' 등의 동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부류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앞의 (16)에 해당하는 (10)의 이동 사건 유형과 동일한 부류로 논하기도 한다.²¹⁾ 본고는 이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1)의 출현 동사들은 '시간'과 연관은 되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지나가는 심리적인 의미가 더욱 부각, 추상화되는 이동 사건을 나타낸다고 간주한다.²²⁾ 얼렁뚱땅 해치우거나 속이거나 덮는 동작 행위는 행위의 대상을 동작 행위를 통해 넘어가야 하는 주관적인 고난의 관문 경로로 인식하게 한다.²³⁾ 또한 이 고난의 경로는 화자 입장에서는 넘기 싫고 억지로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화자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넘겨 버리면 그만이라는 사건 종결성을 주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고난의 경로 '過'는 시간으로부터 더욱 추상화된 질적 관문 의미를 가져 '去'와만 결합하여, 화자로부터 멀어지는 직시 성분 '去'에 '억지로 함' 등의 주관화된 의미를 덧입힌다. 따라서 (11)의 동사류들은 '過去'와만 결합하고 고난의 경로는 화자가 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므로 화자의 입장과 가까워지는 '過來'와는 결합할 수 없는 비대칭 양상이 발생한다. 또한 (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난'의 의미가 더욱 부각된 경로 '過'는 높이가 낮고 평평한(즉 (16)에서 보듯이) 네모의 관문 형태보다는 높이가 더욱 높아 넘기 싫지만 억지로 어떻게든 넘어가야 할 고난의 관문임을 시각적으로 암시하게 된다.²⁴⁾ (11a) '搪塞過去'는 한국어의 '얼버무리다'로 번역되어 동사의 임기응변 의미는 표현

21) 劉月華(1998), 周紅·鮑瑩玲(2012) 등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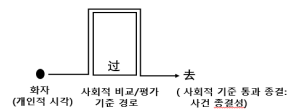
22) 尹夏燕·吳春相(2023:115)에서는 (11)에 출현하는 동사류들이 심리 인지 의미역에서 논의되며, '지나가는(度過)'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23) (11b) '瞞不過我去'의 '我'는 시간보다는 넘어가야 할 일종의 주관화된 관문 경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며, '我'와 같은 특정 관문 의미 성분이 출현하여 '過'의 경로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24) 曾傳祿(2009b:4)에서는 아래 (18)의 이동 도식을 반영하는 (12)의 '사회적 비교/평가 기준'의 경로 '過'가 일정한 고도를 지녀 화자가 양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하면서, (12)에 출현하는 동사류는 수량 인지 의미역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본고는 (11)의 이동 사건 역시 (12)와 마찬가지로 경로 '過'가 일정한 고도를 지닌 주관화가 더욱 진행된 질적 경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간주한다.

하였으나 ‘過去’에 대응되는 성분은 출현하지 않았다. 영어에서는 ‘brush off’로 번역되며 경로 성분 ‘off’가 떨쳐내거나 털어내기, 부담을 제거하는 추상화된 의미를 나타내어(이기동 2022:339-346) ‘去’의 역지로 고난을 통과해 버림의 의미가 일종의 제거 의미를 나타낸다고 연관시켜 볼 수도 있겠으나 ‘過’의 추상적인 이동 경로 의미는 반영되지 않았다. (11c) ‘吃過去’ 역시 음식이 먹어 넘겨야 하는 고난의 경로 의미 ‘過’와 연관되며 먹는 동작은 치아가 좋지 않고 소화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부담되지만 역지로 해서 넘겨 버려야 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임기응변 의미의 동사류와 함께 논의하여 이동 사건으로서의 유형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떡어치우다’로 표현되어 ‘치우다’가 해치워 없애버리는 의미로서 ‘去’의 일종의 제거 의미에 의미적으로 부합하기는 하지만 ‘過’의 추상적인 이동 경로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다. 영어에서는 ‘eat’으로 먹는 동작만을 표현하여 ‘過去’와 대응되는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11b) ‘瞞不過我去’는 한국어 ‘나를 속일 수는 없다’, 영어 ‘can’t fool me’로 번역되어 ‘過去’에 대응되는 의미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보다 추상화된 고난의 경로 ‘過’ 의미는 중국어 고유의 언어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한국어, 영어에서 명확하게 반영된 성분을 찾을 수 없어, 학습자들에게 난도가 있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18) 사회적 비교/평가 기준 경로 ‘過’+(사회적 비교/평가 기준)+
사회적 기준 통과 종결 ‘去’(이동 사건 (12) 유형)²⁵⁾



(18)은 (12)의 이동 사건 유형을 보여주는데, (12a)에는 일정량을 초과, 비교하는 의미의 ‘比’, ‘賽’ 등의 동사류가 출현하고 (12c-d)에는 각각 발화 동사

25) ‘過’의 사회적 평가/기준 경로 의미는 각주 (24) 참조.

‘說’, 감각동사 ‘看’, ‘聽’ 등이 출현한다. 이때 ‘過’는 일정한 질적 기준으로서 때로는 (12a)처럼 비교 동작을 통해 통과하는 사회적 기준 경로를, 때로는 (12c-d)처럼 평가 동작을 통해 통과하는 사회적 기준 경로를 나타낸다. (12c)의 ‘說’ 및 (12d)의 ‘看’, ‘聽’은 발화 혹은 감각을 통해 모종의 대상을 평가하는 의미로 쉽게 주관화되며 또한 (12b)의 ‘吃’ 역시 전형적인 평가 동사류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먹는 동작을 통해 일종의 감각적인 평가를 하는 의미로 주관화되기 용이한 부류라고 할 수 있다. ‘過’는 비교, 평가의 질적 기준 경로로서 화자의 입장에서는 비교, 평가 동작이 넘어가야만 하는 사회적 기준이 되므로 화자 개인적 시각과는 상대적으로 먼 방향으로 이동하여 사회적 의미를 표출할 수 있는 직시 성분 ‘去’와만 결합하여 사건의 종결성을 나타낸다. 이처럼 ‘過’는 화자의 개인적 시각이나 기준이 반영된 ‘來’와는 결합할 수 없으므로 비교, 평가 동사류들은 ‘過來/過去’와 비대칭적인 결합 양상을 보인다. (12a), (12c)에서는 ‘過’ 뒤에 겨루거나 혹은 평가하는 동작이 넘어가야 할 비교/평가 기준으로서 각각 ‘我們’, ‘端午兒’을 출현시켜 ‘過’의 경로 의미를 더욱 부각시켜 표현한다.²⁶⁾ 또한 관련 질적 경로 의미가 더욱 추상화됨에 따라 ‘비교 동사+得/不+過去’의 가능보어 형식을 통해 가능성 여부에 대한 화자의 주관화된 판단 의미를 더하는 경향이 발생한다. 또한 이처럼 가능보어 형식이 출현하는 실례들은 (12b-d)에서 보듯이 평가 동사가 ‘過去’와 결합할 경우 더욱 빈번하게 나타난다. 더욱이 (12c) ‘說不過端午兒去’는 ‘(두꺼비는) 말로 단오절을 넘길 수 없다’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부터 ‘설득하려 해도 소용없다’는 관용적 의미로, (12d) ‘看得過去’는 ‘보아 넘길 수 있다’의 의미로부터 ‘그럭저럭 봐줄 만 하다, 괜찮다’의 관용적 의미로 분석할 수 있어 주관화가 더욱 심화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12a) ‘賽過去’는 한국어로는 ‘잘 하다’, 영어로는 ‘surpass’로 표현된다. (12b) ‘吃得過去’는 한국어로는 ‘그럭저럭 먹을

26) 그밖에 “天賜看不過眼去...”(CCL)와 같은 실례들도 발견된다. 아울러 “吃來雪嫩笋甜, 賽過鴨梨。”, “我說不過他。”(劉月華 1998:275-276)의 실례들은 ‘過’가 단독으로 특정 대상과 결합하여, 넘어가야 하는 질적 관문의 경로 의미를 명확하게 나타낸다.

만한’, 영어로는 ‘passable’로 표현된다. (12c) ‘說不過端午儿去’는 한국어로는 ‘단오에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설득하려 해도 소용없다’, 영어로는 ‘can’t be reasoned with on the Dragon Boat Festival’로 표현된다. (12d) ‘看得過去’는 한국어로는 ‘괜찮다’, 영어로는 ‘presentable’로 표현된다. 이처럼 한국어, 영어에서는 ‘過去’에 해당되는 표현이 ‘잘 하다’, ‘surpass’와 같이 유사 의미의 동사로 실현되거나 ‘그럭저럭 먹을 만한’, ‘passable’처럼 해당 의미를 풀어 설명하기도 한다. ‘설득하려 해도 소용없다’, ‘can’t be reasoned with’, ‘괜찮다’, ‘presentable’과 같이 관용 의미로 번역하는 양상도 관찰할 수 있어, 학습자가 습득하기 매우 어려운 중국어 고유의 언어적 특성이 반영된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실현 사건(Event of Realization)

Talmy가 제시한 거시 사건 유형 가운데 실현 사건 (4e)는 경로 성분 ‘down’이 완수 동사 ‘hunt’가 범인을 잡은 종결 사건을 확정하는 의미로 추상화되어 전체 사건에 모종의 실현 결과를 부여하는 부류이다. 중국어 역시 수량 대상 목적어를 취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완수(accomplishment) 동사류들이 대개 ‘過來’와 결합하여 사건의 종결 이후에 화자가 다수의 대상 목적어들을 두루 섭렵하는 ‘주편(周遍)’ 실현 결과를 확인하는 실현 사건 유형이 다음의 (19)와 같이 존재한다.

- (19) ‘수량 대상 목적어 결합 동사+過(다수의 업무, 조건 등의 경로)+來(수행 실현 결과의 확인, 희망)’
- a. 反正這裏事情不多, 你和馬威足可以照應過來了!(伏涼涼 2021:24)
(어쨌든 여기 일은 많지 않으니, 너와 馬威 둘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 Anyway, there’s not much going on here, so you and Ma Wei can easily handle it!)
 - b. “過去沒得看, 現在多得看不過來。”是人們對於在北京舉行的各種大型演出和電影大片最深的體會。(曾傳祿, 2009a:45) (=1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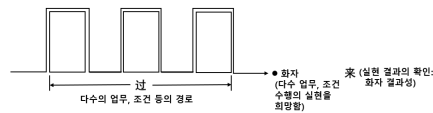
“예전에는 볼 게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 다 보지 못할 정도다.” 이는 베이징에서 열리는 각종 대형 공연과 영화 블록버스터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깊이 느끼는 점이다./ “In the past, there was nothing to watch; now there are so many that one can't possibly watch them all.” This is the deepest impression people have about the various large-scale performances and blockbuster films held in Beijing.)

c. 北京傳統小吃真是多得讓人吃不過來。(CCL) (=2c)

(베이징의 전통 간식은 정말 너무 많아서 다 먹어 보지 못할 정도다./ Beijing's traditional snacks are truly so numerous that one can't possibly try them all.)

(19)의 실현 사건 유형은 수량 대상 목적어가 여러 개의 추상적인 질적 관문 의미를 지녀 이 다수의 관문들을 두루 다 넘어 결국 해당 완수 사건의 실현 결과를 확정 짓고자 하는 화자의 결과성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또한 劉月華(1998:297)에 의하면 동일하게 사건의 완성 결과 의미를 나타내는 보어 '完'과는 달리 '過來'는 수량 목적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대개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더욱 뚜렷이 드러낼 수 있는 가능보어 형식으로 완수 동사와 결합하여 그 수량을 다 감당할 능력이나 겨를이 있어 동작의 실현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의미로 발전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질적 관문이 연이어 이어지는 '過'의 주관적 의미는 앞의 이동 사건에 비해 더욱 추상적 발전을 거친 것이며, 다음의 (20)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20) 다수의 업무, 조건 등의 경로 '過'+수행 실현 결과의 확인, 희망 '來'
(실현 사건 (19) 유형)



(19)의 실현 사건 유형에 출현하는 동사류들은 [+ 지속]과 [+ 종결]의 상적

자질을 지니는 완수 동사로서, 자주성을 지니고 있어 일정한 수량의 대상 목적어를 처리하고 감당하는 의미와 관련된다. 구체적으로는 ‘照應’, ‘管理’, ‘忙’ 등의 일정 업무를 수행하는 의미의 동사, ‘吃’, ‘寫’ 등의 일정 수량의 증분 (incremental) 대상 목적어를 가져 그 목적어의 수량만큼 다 소비 혹은 창조하고 나면 동작의 종결성을 부여받는 동사 등등이 포함된다.²⁷⁾ 이 완수 동사들과 결합하는 ‘過’는 동작을 통해 수행하고 넘겨야 하는 업무, 조건 등의 추상적인 질적 관문의 경로 의미를 가지며 다수의 관문들이 존재하여 전체 사건에 ‘두루두루 영향을 미침’이라는 주편 의미를 부여한다. 아울러 이 업무, 조건의 관문들은 화자의 기준에서는 넘기를 희망하는 것이어서 ‘來’와만 결합하여 이 관문들을 두루 다 넘어 모종의 결과의 실현을 화자가 확인하는 의미를 표현한다. 따라서 화자의 기준과 거리가 먼 ‘去’와는 결합할 수 없으며, 이 완수 동사들은 ‘過來/過去’와의 결합 양상에서 비대칭 현상을 발생시킨다. (19a) ‘照應過來’는 한국어로는 ‘감당하다’, 영어로는 ‘handle’로 번역되며, (19b) ‘看不過來’는 한국어로는 ‘다 보지 못하다’, 영어로는 ‘can’t possibly watch them all’로 번역된다. (19c) ‘吃不過來’는 한국어로는 ‘다 먹어 보지 못하다’, 영어로는 ‘can’t possibly try them all’로 번역되어 ‘過來’의 주관화된 의미를 표현하는 대응 성분을 발견할 수 없다. 이처럼 실현 사건 유형의 ‘過來’는 고도로 추상화된 질적 경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 학습자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용법임을 짐작할 수 있다.

3) 상태변화 사건(Event of State 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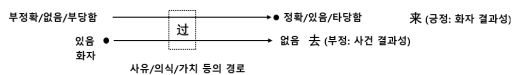
Talmy가 제시한 거시 사건 유형 가운데 (4c)의 상태변화 사건은 다음의 (21-23)과 같은 유형이 포함되며, 이 유형들은 전형적인 공간 이동 사건과 함께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로 많이 거론되는 대표적인 부류들이다.

27) 劉月華(1998:295-296), 周紅·鮑瑩玲(2012:78) 등 참조.

- (21) '사유활동 동사+ 過('부정확'→'정확'의 사유 경로)+(사유 대상 관문)+ 來(긍정)'
- a. 現在他才明白過來。(劉月華 1998:293)
 (이제야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 Only now did he come to understand.)
- b. 李得才一說, 朱老星也就想過這個理兒來。(=3)
 (劉月華, 1998:293)
 (李得才가 한마디 하자, 朱老星도 곧 그 이치를 떠올리게 되었다./
 As soon as Li Decai spoke, Zhu Laoxing also came to realize this reasoning.)
- (22) '의식상태변화 동사+ 過('없음'↔'있음'의 의식 경로)+ 來(긍정)/去(부정)'
- a. 他醒過來了。(伏涼涼 2021:21)
 (그가 깨어났다./ He woke up.)
- b. 病人昏過去了。(伏涼涼 2021:21)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 The patient passed out.)
- (23) '사물상태변화 동사+ 過('부당함'→'타당함'의 가치 경로)+ 來(긍정)'
- 把壞習慣改過來了。(伏涼涼 2021:23)
 (나쁜 습관을 고쳤다./ He/She has corrected his/her bad habits.)

위의 상태변화 사건의 유형들은 심리/신체상태 인지 의미역과 관련 있는 사유활동 동사, 의식상태 변화 동사 및 가치 인지 의미역과 관련 있는 사물상태변화 동사 등이 출현하여 관련 경로 '過'를 통해 이전의 상태에서부터 새로운 상태로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의미를 나타낸다. 본고는 상태변화 사건에 출현하는 것으로 거론되는 다양한 동사류들 가운데 이전과 이후의 상태 변화 유형을 우선적으로 추려 이와 관련되는 비교적 대표적인 몇 종류만 거론하기로 한다.

- (24) 사유/의식/가치 경로 '過'+(사유 대상 관문)+ 긍정 '來'/부정 '去'
 (상태변화 사건 (21-23) 유형)



(21-23)의 상태변화 사건 유형 가운데 의식상태 변화 동사가 출현하는 (22a) ‘醒過來’와 (22b) ‘昏過去’만이 유일하게 ‘過來/過去’의 결합에서 대칭적 양상이 존재한다. (22a)은 의식이 ‘없음’에서 ‘있음’의 상태로, (22b)는 의식이 ‘있음’에서 ‘없음’의 상태로 변화했음을 나타내어 상반된 의미의 의식상태 변화 동사들이 의식이 ‘있음’과 ‘없음’ 간의 변화 결과를 각각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醒來’, ‘昏去’가 변화 과정의 단계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에 반해(劉月華 1998:58, 76 참조), ‘醒過來’, ‘昏過去’에는 추상화된 의식의 경로 ‘過’가 출현하여 상반된 의식 상태로의 변화 과정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醒過來’는 의식이 ‘없음’으로부터 ‘있음’의 상태로 변화해 온 결과를 화자가 인식하는 화자 결과성을 보여주며 동시에 화자 입장에서 좋은 것이라는 긍정의 의미가 함께 내포된다. ‘昏過去’는 의식이 ‘있음’으로부터 ‘없음’으로 변화해 감을 나타내는 사건 종결성을 함의하며 동시에 화자 입장에서 멀어져 나쁜 것이라는 ‘부정’의 의미가 함께 내포된다. 그밖에 (21), (23)의 상태변화 유형은 일괄 ‘過來’만이 출현할 수 있는 부류들인데, 이들은 모두 변화된 상태가 ‘정확’, ‘타당함’과 같이 긍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 관련 경로 ‘過’가 ‘來’와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⁸⁾ 구체적으로 (21a) ‘明白過來’, (21b) ‘想過這個理兒來’는 ‘부정확’ 상태에서 사유 경로 ‘過’를 거쳐 ‘정확’ 상태로 변화되었음을 화자가 인식하는 화자 결과성을 나타낸다. 특히 (21b) ‘這個理兒’은 ‘過’가 나타내는 사유의 관문이라는 경로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 준다. (23) ‘改過來’는 동작을 통해 ‘부당함’ 상태에서 가치 경로 ‘過’를 거쳐 ‘타당함’ 상태로 변화시켰음을 화자가 인식하는 화자 결과성을 나타낸다. 그밖에 (21-23)에 출현하는 동사들은 대략 변화 결과 의미를 포함하는 [-지속], [+종결], [+결과]의 성취(achievement) 동사로 분류되어 이 상태변화 사건 유

28) 馬慶株(1997)에 의하면, 상태변화 사건 가운데 ‘V+過來’는 ‘있음’으로의 변화 결과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데 ‘來’를 통해 이 변화의 출현을 화자가 직접 인식할 수 있다. ‘있음’으로의 변화 의미는 ‘정확’, ‘타당함’으로의 변화 의미와 더불어 ‘來’를 통해 긍정, 희망의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반대로 ‘V+過去’는 ‘없음’으로의 변화 의미를 나타내어 직시 성분 ‘去’를 통해 화자가 직접 목도할 수 없는 부정적 상태로 변화해 갔음을 나타낸다.

형들은 '동사(결과)+보충어(경로+직시)'의 의미 결합 형식으로 나타난다. 기존의 '동사+보충어' 형식의 경우 동사는 '원인(방식)+과정'을, 보충어는 동작으로 인한 모종의 '결과'를 나타내는 의미 결합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같은 '동사(결과)+보충어(過來/過去)'의 형식은 예외적으로 동작의 순간적인 과정을 통한 결과 의미가 동사 내에 포함된다.²⁹⁾ 또한 후속의 보충어 '過來/過去' 가운데 '過'로 표현되는 변화 결과로의 과정 의미는 구체적인 과정 경로라기 보다는 심리적인 측면의 사유 및 신체상태, 가치 등과 연관된 고도로 추상화된 경로이며 이에 따라 '來/去'는 긍정, 부정 등의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는 데 집중한다. 따라서 '過來/過去'는 과정 자체 의미보다는 그야말로 동작의 변화 결과 뒤에 부가되어 그 결과 상태에 대한 화자의 인식 의미를 위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24)의 '過' 경로는 앞의 이동 사건, 실현 사건보다도 더욱 추상화된 의미를 가져, 구체적인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 추상적인 실선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3) '改過來'의 한국어 표현은 '(나쁜 습관을) 고치다', 영어 표현은 'correct (his/her bad habits)'로 모두 동사로만 번역되었고 '過來'에 대응되는 한국어, 영어의 의미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21a) '明白過來'의 한국어 표현은 '깨닫다', 영어 표현은 'come to understand'이며, (21b) '想過這個理兒來'의 한국어 표현은 '그 이치를 떠올리게 되다', 영어 표현은 'come to realize this reasoning'으로 한국어의 '떠+올리다(경로)'의 경로 성분과 영어의 'come'이 '過'와 '來'에 각각 일부 성분만 대응된다. (22a) '醒過來'의 한국어 표현은 '깨어+나다(경로)', 영어 표현은 'wake up(경로)'으로 한국어, 영어의 경로 성분은 '過來'의 본래 의미와 잘 부합하지는 않는다. (22b) '昏過去'의 한국어 표현은 '의식을 잃다', 영어 표현은 'pass out(경로)'으로, 한국어에서는 '過去'를 '잃다'라는 동사로 번역하여 형식상의 대응성이 발견되지 않으며, 영어에서는 의식이 밖

29) 신경미·최규발(2019:31-32)에 의하면, 복합 사건 '醒+過來'는 원인 사건 '醒' 내에 [-지속]의 결과 의미가 포함되며 결과 사건 '過來'의 출현을 통해 과정성을 부여 받으므로, 이 두 하위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여 시간적으로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으로 빠져나감을 표시하는 ‘out’의 경로 성분이³⁰⁾ ‘過去’에 대응된다. 이처럼 상태변화 사건에 출현하는 ‘過來/過去’ 용법은 의미상의 추상성으로 인해 한국어, 영어와의 의미, 형식상의 대응성이 많이 보이지는 않아 학습자들에게 습득하기 어려운 표현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복합방향보어 ‘過來/過去’의 ‘過’가 나타내는 ‘관문’(passage) 의미 이해에 중점을 둔 PBL의 ‘문제’ 설계

본고는 특히 이동의 의미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동사류가 ‘過來/過去’와 결합한 경우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로 ‘過’와 직시 성분 ‘來/去’의 결합 의미가 주관화되는 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학습자 스스로 떠올리고 체득해 보는 과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PBL의 문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³¹⁾ 먼저 본고는 앞선 2장의 분석 내용과 관련하여 PBL을 통해 최종적으로 습득해야 할 목표 문법 내용을 교수자가 문제 제시 단계 이전에 학습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25)와

30) 이기동(2022:389) 참조.

31) Barrow and Myers(1993)는 PBL 수업 모형으로 [수업 전개]→[문제 제시]→[문제 후속 단계]→[결과물 제시 및 발표]→[문제 결론과 해결 그 이후]의 과정을 제시하였다(김보경·홍상희 2023:408 재인용). 본고의 PBL ‘문제 설계’는 [수업 전개] 및 [문제 제시] 단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교수는 우선 [수업 전개] 단계에서 복합방향보어 ‘過去/過去’의 대략적인 의미와 유형들을 제시하고 이를 학습자가 습득해야 할 주요 목표 문법 지식으로 설정한다. 이어서 [문제 제시] 단계에서 이 목표 문법 지식들과 관련된 구조화된 문제를 제시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본고는 비위치이동 의미를 포함한 다양한 동사가 출현하는 ‘V+ 過去/過去’의 의미들을 파악하기 위해 ‘過’의 관문 의미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 아울러 학습자가 직접 이 용법들의 의미를 추상화하고 연결시켜 사용해 보는 주체자, 즉 화자가 되어 스스로 이 용법들을 익혀가는 체험 과정의 일환으로 PBL ‘문제’의 활용을 제안한다. 편폭의 제한으로 이 문제들을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하여 PBL 수업 모형의 전체 단계를 실현하는 것은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같다. 이 문법 지식들은 중국어 문법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중급 단계 이상의 학습자들이 습득하기에 적절할 것이며,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학습자들의 개별 수준 상황에 따라 교수자 재량에 따라 일부 내용을 증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25) PBL 문제 설계를 위한 목표 문법

- | |
|--|
| <p>1. '이동 동사+ '過來/過去'의 실례('過來/過去'와의 대칭 결합)
跑過來/跑過去</p> <p>2. '비이동 동사+ '過來/過去'의 실례('過來/過去'와의 대칭 결합)</p> <p>① 신체자세 동사+ '過來/過去': 坐過來/坐過去</p> <p>② 비전형 이동 동사+ '過來/過去': 看過來/看過去</p> <p>③ 소유권 이동 동사+ '過來/過去': 買過來/買過去</p> <p>④ 인내 동사+ '過來/過去': 熬過來/熬過去</p> <p>⑤ 의식상태변화 동사+ '過來/過去': 醒過來/昏過去</p> <p>3. '비이동 동사+ '過來'의 실례('過來'와만 결합)</p> <p>① 수량 대상 목적어 결합 동사+ '過來': 照應/忙/看/吃+ '得/不'+ 過來</p> <p>② 사유 활동 동사+ '過來': 明白/想+ 過來</p> <p>③ 사물상태변화 동사+ '過來': 改過來</p> <p>4. '비이동 동사+ '過去'의 실례('過去'와만 결합)</p> <p>① 임기응변/속임 의미 동사+ '過去': 搪塞/瞞/吃+ ('得/不')+ 過去</p> <p>② 비교/평가 의미 동사+ '過去': 賽/吃/說/看+ '得/不'+ 過去</p> <p>5. '過'의 '관문' 경로 의미와 직시 성분 '來/去' 의미의 추상화 과정
(위의 1-4의 실례 비교, '過來/過去'와의 결합 양상 비교)</p> |
|--|

(25)의 목표 문법 내용에 비추어, 학습자에게 제시할 문제 유형을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관련 문제는 얼마든지 다양화할 수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자 인원 수의 조직 역시 상황에 따라 단독 혹은 그룹으로 융통성 있게 편성한다.

(26) 문제 예시: 다양한 '관문' 의미를 화자 입장에서 따라가 보기

1. 먼저 다음과 같이 이동 동사가 ‘過來/過去’와 결합하여 공간을 거쳐 나(화자)에게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실례를 살펴보고, ‘지나가는’ ‘過’와 ‘가까워지거나/멀어지는’ ‘來/去’의 의미를 짚어본다.

花雲難見也忙跳過船來。
趁着夜色，跳過圍牆去。

2. 이동 의미가 뚜렷하지 않은 동사들이 ‘過來/過去’와 결합할 때 내가 화자의 입장이 되어 동작의 과정에 따라 ‘過’는 어떠한 경로를 나타내게 되는지, 아울러 ‘來/去’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 (25) 목표 문법의 실례들을 각각 자세히 상상하여 설명한다. (주의: 발표 내용은 상세할수록 좋다. 또한 ‘過來/過去’와의 결합 양상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적인 측면도 자세히 고려해 본다.)

가능 답변의 예)

坐過來: 나(화자)와 먼 저쪽에 누군가가 있다. 그는 나와 가까운 곳으로 건너와 앉았다. 나는 그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공간 경로 ‘過’를 통해 앉은 위치를 가까이(‘來’) 변화시켰다는 의미 자체에 집중한다.

看得過去: 나(화자)는 그(그녀)의 외모를 보고(‘看’) 사회적 기준에 비추어 넘어(‘過’) 가(‘去’)줄만 하여, 그럭저럭 괜찮다고 평가했다. 사회적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고(‘來’) 사용 불가, 내가 그 기준 위치로 맞추어 가는(‘去’)만 사용 가능) 것이다. 또한 ‘통용되는 사회적 기준을 넘어갈 수 있으니’ ‘괜찮다, 수용할 수 있다’는 관용적 의미로도 쓰일 수 있을 것이다.

3. 동일한 동사(예: ‘看’, ‘吃’)가 ‘過來/過去’와 결합하여 나타내는 각각의 의미들을 앞의 2의 방식으로 서로 비교하여 설명해 본다. 나아가 가능하다면, 그 의미들 사이의 발전 관계도 생각해 본다.
4. 그밖에 고빈도 비이동 동사들이 ‘過來/過去’와 결합하는 실례들을 찾아 그 의미들을 앞의 2의 방식으로 각각 설명해 본다.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過’의 추상화된 관문 의미와 ‘來/去’와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불특정 고빈도 비이동 동사류와 ‘過來/過去’를 결합시키는 활용 능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Talmy(2000)의 거시 사건 이론에 기반한 사건 유형 분류를 통해 이동 동사를 포함한 다양한 부류의 비이동 동사들이 출현하는 'V+ 過來/過去'의 의미를 비교적 명확하게 나열할 수 있다.

둘째, 이동 사건의 유형에 속하는 'V+ 過來/過去'에는 전형적인 이동 동사 이외에도 행위자의 구체적인 위치 이동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 신체자세 동사 등이 출현한다. 또한 인내 동사가 출현하면서 이때 '過'는 구체적인 공간으로부터 시간의 관문 경로 의미로 발전한다. '過'로 나타나는 경로의 관문 의미가 더욱 추상화됨에 따라 임기응변이나 속임 의미 동사, 비교/평가 의미 동사 등이 출현하는데, 이 경우에는 '過去'와만 결합이 가능하다. 이때 '過'는 고난의 관문, 비교/평가 기준의 관문 경로 의미로 한층 발전하여 '去'와의 결합을 통해 억지로 함, 원하지 않음 등의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드러낸다. 이처럼 이동 사건의 유형에 속하는 'V+ 過來/過去'의 실례는 Talmy가 제시한 전형적인 공간 위치 변화 의미를 나타내는 부류 이외에도, '過'의 경로 의미가 주관화됨에 따라 고난의 관문 통과, 사회적 비교/평가 기준의 통과 등 다양한 이동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 복합방향보어 '過來/過去'로 표현되는 중국어 이동 사건 유형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실현 사건 유형의 'V+ 過來'에는 수량 대상 목적어와 결합하는 완수 동사류가 출현하며, 가능보어 형식이 주로 사용되어 '過'로 표현되는 다수의 업무, 조건 등의 더욱 추상화된 관문 경로를 넘어 사건을 실현시킬 능력이나 겨를이 있는지의 판단에 집중하는 화자의 주관화된 의미를 표현한다. 이때 '來'를 통해 다수의 업무, 기준의 관문을 넘어서 오는 것은 화자가 희망하는 것임을 나타낸다.

넷째, 상태변화 사건 유형의 'V+ 過來/過去'에는 상반된 의미의 의식상태 변화 동사가 출현하며 이때 '過'는 '없음'과 '있음' 상태 사이의 의식 경로를

나타내어 구체적인 변화의 과정 자체보다는 고도로 추상화된 관문 의미를 표시하는 데 집중한다. 아울러 ‘來’와 결합하여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변화함을 화자가 인식하는 의미를, ‘去’와 결합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변화하여 화자가 인식할 수 없는 상태로 넘어감을 표현한다. 그밖에 사유활동 동사, 사물상태 변화 동사는 ‘過來’와만 결합하여 추상화된 사유 경로 ‘過’를 거쳐 ‘부정확’으로부터 ‘정확’ 상태로의 변화, ‘부당함’으로부터 ‘타당함’ 상태로의 변화를 표현한다. 이때 ‘來’는 ‘정확’, ‘타당함’과 같은 추상화된 화자의 긍정 의미를 나타낸다.

다섯째, 지금까지의 사실을 통해, ‘V+ 過來/過去’의 여러 유형 가운데 ‘過’로 표현되는 경로 의미의 주관화가 심화될수록, 해당 출현 동사가 ‘過來’ 혹은 ‘過去’와 결합하는 양상에서 비대칭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이처럼 ‘V+ 過來/過去’의 다양한 유형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過’의 관문 경로 의미의 주관화 과정과 이와 관련된 직시 성분 ‘來/去’의 파생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이를 PBL의 관련 문제로 설계하여 비전형적인 비이동 동사들과 ‘過來/過去’를 결합시켜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參考文獻

- 김보경·홍상희, 「PBL(Problem Based Learning)을 적용한 문법 수업 사례 연구-최상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새국어교육』 제136호, 403-438, 2023.
- 김윤정, 「현대중국어 방향보어구조의 함의 재조명」, 『中語中文學』 第61輯, 459-477, 2015.
- 리우하이러·김성주, 「한·중 이동사건의 어휘화 양상 대조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제19권 제1호, 32-59, 2022.
- 신경미·최규발, 「방향보어 결과 의미의 결과성과 사건구조」, 『中國語文論叢』 第96輯, 17-36, 2019.
- 이갑남, 「현대중국어 코퍼스에 기반한 ‘V過來/過去’ 구문의 의미와 용법 연구」, 『東亞人文學』 第56輯, 247-287, 2021.
- 이기동, 『영어 전치사 연구-의미와 용법(4판)』, 교문사, 2022.
- 李彰浩·李知玆·鄭池秀, 「상 자질에 관한 몇 가지 생각」, 『中國語文論叢』 第69輯, 97-122, 2015.
- 홍연옥, 「이동사건 표현의 언어유형론과 공동합성 양상 고찰-‘뜨다’ 표현을 중심으로-」, 『中國文學』 第77輯, 273-297, 2013.
- 曾傳祿, 「障礙圖式與“V得(不)過來/過去”」, 『燕山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10卷 第1期, 43-46, 2009a.
- 曾傳祿, 「“過來”“過去”的用法及其認知解釋」, 『西華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2期, 1-7, 2009b.
- 伏涼涼, 『韓國留學生趨向補語“過來/過去”各義項的習得順序研究』, 上海外國語大學 碩士學位論文, 2021.
- 贾紅霞·李福印, 「狀態變化事件與實現事件的概念界定」, 『外語教學』 第36卷 第1期, 22-27, 2015.
- 焦飛燕, 『“V得/不過來”與“V得/不過去”的比較研究』, 上海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 李福印, 「典型位移運動事件表徵中的路徑要素」, 『外語教學』 第38卷 第4期, 1-6, 2017.
- 梁銀峰, 『漢語趨向動詞的語法化』, 學林出版社, 2007.
- 劉月華, 『趨向補語通釋』,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1998.
- 馬慶株, 「“V來/去”與現代漢語動詞的主觀範疇」, 『語文研究』 第3期, 16-22, 1997.
- 王國柱, 『趨向問題研究』, 華夏出版社, 2005.
- 王硯農·焦群·龐顛, 『漢語動詞-結果補語搭配詞典』,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87.
- 王宜廣, 「動趨組合的基礎語義框架及其教學思路」, 『華文教學與研究』 第3期, 36-44, 2014.
- 尹夏燕·吳春相, 「能性動趨式“V得(不)過來/過去”的不對稱分化特徵」, 『青海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45卷 第5期, 112-118, 2023.
- 周紅·鮑瑩玲, 「複合趨向結構“V+ 過來/過去”的對稱與不對稱」, 『語言教學與研究』 第3期, 74-81, 2012.
- 周紅·何凡, 「從認知圖式看動趨式“V+來/去”的主觀化」, 『安陽師範學院學報』 第1期, 103-110, 2018.
- 張慧, 『“V過來”的句法語義分析及“過來”的虛化探索』, 上海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 張幼冬, 「趨向補語“過來”“過去”引伸義的語義分析」, 『吉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第4期, 23-27, 2010.
- 朱京津, 「趨向補語“過來”“過去”的二語習得釋義策略」, 『漢語學習』 第2期, 106-112, 2017.
- 宗茜, 「趨向動詞“過來”“過去”的語義分析與意象圖式建構」, 『青島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27卷 第2期, 89-92, 2015.
- Slobin, D. I., “The many ways to search for a frog: Linguistic typology and the expression of motion events”, In S. Strömquist and Verhoeven (eds.) *Relating Events in Narrative: Typological and Contextual Perspectiv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004.
- Talmy,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Typology and Process in Concept*

Structuring(volume II), Cambridge, MA: MIT Press, 2000.

Wang, Leslie Fu-mei, "From a Motion Verb to an Aspect Marker: A Study of Guo in Mandarin Chinese", *Concentric: Studies in English Literature and Linguistics* 28.2, 57-84, 2002.

Yang, Yuhang and Fuyin Thomas Li, "A diachronic study on the Mandarin complex directional complement *guòlái* 'come over' from the macro-event perspective", *Cognitive Linguistics* 36(2), 261-297, 2025.

Abstract

The ‘Passage’ Meaning of ‘*guo*(過)’ in the Modern Chinese Complex Directional Complements ‘*guo lai*(過來)/*guo qu*(過去)’ and Its Application to PBL(Problem-Based Learning) ‘Problem’ Design

Lee, Ji Hyoun

This paper aims to systematically grasp the diverse meanings of the Complex Directional Complements ‘*guo lai*(過來)/*guo qu*(過去)’. To achieve this, we categorize and analyze various types of ‘V+ *guo lai*(過來)/*guo qu*(過去)’ featuring non-motional high-frequency verbs into three main Macro Event types based on Talmy(2000)’s theory: the Motion Event, the Event of Realization, and the Event of State Change. In the process, we observe an interac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assage path meaning of ‘*guo*(過)’ and the deictic components ‘*lai*(來)/*qu*(去)’, leading to a pattern of progressive subjectification and development. As ‘*guo*(過)’ is abstracted from a concrete spatial path to a passage path meaning in the temporal and qualitative domain, ‘*lai*(來)/*qu*(去)’ evolve from simple proximity/distance relative to the speaker to meanings reflecting the speaker’s subjective perceptions, such as desire/undesire and affirmation/negation. Such highly abstract meanings of ‘*guo lai*(過來)/*guo qu*(過去)’ often lack direct counterparts in Korean or English, demonstrating a unique linguistic typological characteristic of Chinese while highlighting the difficulty for learners in acquiring these expressions.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to enhance learners’ usage ability of ‘*guo lai*(過來)/*guo qu*(過去)’ by presenting it as a relevant PBL(Problem-Based Learning) ‘problem’ for learners to solve and internalize through self-directed learning.

Key words : ‘*guo lai*(過來)/*guo qu*(過去)’, Passage Path Meaning, Motion Event, Event of Realization, Event of State Change, PBL(Problem-Based Learning)

투 고 일 : 2025. 10. 10. / 심 사 일 : 2025. 10. 15.~ 2025. 11. 15. / 게재확정일 : 2025. 11. 20.